

SDGs 돋보기

지속가능발전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기획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목 차

02	지속가능발전목표 개관
04	SDG1 빈곤 퇴치 빈곤 퇴치, 인권 보호의 전제조건
06	SDG2 기아 종식 혼란에 대응하는 최고의 백신은 식량
08	SDG3 건강과 웰빙 더 오래, 그리고 더 건강히 살기 위해
10	SDG4 양질의 교육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의 밑바탕
12	SDG5 성평등 인류가 잠재력을 완전히 발휘하기 위해
14	SDG6 깨끗한 물과 위생 물, 인권의 필수요소이자 모든 SDGs의 연결고리
16	SDG7 적정 가격의 깨끗한 에너지 시대와 세대를 초월하는 '에너지 정의' 달성의 이정표
18	SDG8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얼마나'가 아닌,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에 관한 약속
20	SDG9 산업, 혁신, 사회기반시설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기초체력
22	SDG10 불평등 감소 세상의 '악한 고리'가 없어질 때까지
24	SDG11 지속가능한 도시와 지역사회 도시의 건강은 곧 우리의 건강
26	SDG12 책임 있는 소비와 생산 나의 소비 선택으로 이루는 지속가능한 미래
28	SDG13 기후행동 하나뿐인 지구를 위한 과감하고 긴급한 조치
30	SDG14 수생태계 보전 바다는 우리의 근원이자 미래
32	SDG15 육상생태계 보전 생태계의 일원으로서 지구의 미래를 지키는 일
34	SDG16 평화, 정의, 강력한 제도 지속가능발전의 전제조건이자 결과
36	SDG17 목표 달성을 위한 파트너십 더 나은 세계를 위한 하나의 목표

* 이 책은 2020-2021년 <유네스코뉴스>에 연재된 'SDGs 돋보기' 코너의 기사를 모아 만들어졌습니다.

* 지속가능발전목표 인포그래픽 출처: UN SDGs 홈페이지 sdgs.un.org/goals

지속가능발전 목표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게 ‘지속가능발전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라는 용어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이를 안다는 사람들도 그저 환경보호활동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을 정도이지요. 이런 흔한 ‘오해’들과 달리 지속가능발전목표는 생태계 보호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점점 더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정의와 인권, 성평등, 공동체, 자연 등 ‘포괄적인 삶의 가치’들을 포함하는 국제적인 약속이자 정책 도구로서 점점 그 중요성을 더해 가고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을 한 마디로 정의하자면 “미래 세대의 ‘필요’(needs)를 충족시킬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 세대의 필요를 충족하는 발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단순하게는 지금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우리 후손들이 누려야 할 자원(문자 그대로의 자원뿐만이 아니라 사는 데 필요한 물과 공기와 숲 등을 포괄적으로 포함한 환경)을 무분별하게 당겨쓰거나 훼손하지는 말자는 뜻입니다. 이 용어는 1987년 유엔환경계획(UNEP)의 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가 발표한 보고서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 일명 ‘브룬트란트 보고서’)에서 처음 정의되었고, 이후 인류가 경제적인 진전을 지속하면서도 환경적 가치를 보호할 수 있는 정책과 개발 전략을 수립하도록 하는 중요한 원칙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지속가능발전과 환경보호

그동안 지속가능 발전을 환경 관련 단체들이 주로 강조해 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속가능 발전을 곧 환경 관련 용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가능 발전이 경제 발전과 환경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동시에 추구하는 개념인 만큼, 지속가능 발전은 “환경정책과 개발전략을 통합하는 체계를 제시하고 있다”(유엔총회, 1987년)고 보는 편이 가장 정확합니다. 과거의 인류가 ‘경제개발이냐 환경보호냐’의 딜레마 속에서 두 가치가 병립할 수 없다는 전제 하에 선택을 해 왔다면, 지속가능 발전이 추구하는 것은 ‘경제개발이 곧 환경보호’이자 ‘환경보호가 곧 경제개발’이 될 수 있도록 전 인류가 노력하자는 것입니다. 과거의 기준에서라면 이것이 허무맹랑한 소리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오늘날의 발달한 과학기술과 적절한 정책 수립, 교육과 대중들의 소비 행태 변화가 뒷받침된다면 이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을 강화하면 자동차 업계가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니라, 전기차나 재생에너지 활용 등에서 혁신 기술이 개발되고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는 것도 한 예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속가능발전목표, '개념'이 '약속'이 되다

80년대 말 냉전이 종식되고 새천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유엔 회원국 사이에서는 지구촌 문제의 해결을 위한 공동의 약속을 마련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이에 지난 2000년, 전세계의 대표들은 유엔에 모여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이하 MDGs)에 합의하고 이를 2015년까지 인류가 추구해야 할 목표로 삼았습니다. MDGs는 빈곤과 질병 퇴치, 모자 보건 향상, 교육기회 제공 등 개도국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그 초점을 두었습니다. 이후 MDGs는 일부 목표에서는 상당한 성과를 보였지만 다른 목표에서는 부분적이거나 미약한 성과에 그쳤고, 그런 성과 역시 지역 및 계층 간 불균형을 보이며 또 다른 숙제를 남겼습니다. 이런 교훈을 바탕으로 국제사회는 2015년 이후 MDGs를 계승하여 미완의 과제를 마무리하는 한편, 보다 평등하고 보다 포괄적인 시각에서 지속가능성을 바라보며,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보편적인 목표를 설정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이 유엔을 중심으로 한 각 회원국 정부와 시민단체, 전문가들로부터 지지를 얻으면서, 유엔은 2012년 '리우+20회의'로 알려진 유엔지속가능발전회의(UNCS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Sustainable Development)를 통해 MDGs를 대체할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선정하는 절차에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3년에 걸친 협상 끝에 2015년 제70차 유엔총회에서 전 세계는 만장일치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의제'라는 이름으로 SDGs를 채택했습니다. 여기에는 2030년까지 세계가 함께 실천해야 할 17개 목표와 169개의 세부목표가 담겼고, 이 17개 목표들이 서로 연계하여 ▲빈곤 퇴치 ▲인권 보장 ▲성평등의 3개 최우선 목표로 일관되게 이어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유엔 차원에서 공동의 목표를 세우고 이를 각 국가들이 실천한다는 방식이 처음 시도되었던 MDGs가 '빈곤 퇴치'에 중점을 두어 선진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들이 '자신의 문제'라고 인식하고 책임감을 갖도록 하기에 한계가 있었던 반면, SDGs는 MDGs에서 다뤄지지 않았던 불평등, 지속가능하지 않은 소비 패턴, 취약한 제도적 역량, 환경파괴 등을 다루면서, 기존의 정치·경제·사회 제도와 구조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진정한 '인류 모두를 위한 약속'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빈곤 퇴치, 인권 보호의 전제 조건

윤선이 개발협력팀 선임전문관

지난 2000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새천년개발목표(MDGs)가 설정된 이후, 1990년에 36%에 달했던 지구촌의 절대 빈곤율은 2010년 15.7%로 떨어졌으며, 2015년에는 10%까지 떨어져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 세계 인구의 10%인 7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제1차 국제 빈곤선'으로 설정된 하루 1.9달러 미만의 생활비로 극심한 빈곤 속에서 살아갑니다. 따라서 MDGs를 이어 새로운 목표를 담은 SDGs 역시 첫 번째 목표를 '빈곤 종식'(End Poverty)으로 삼은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변혁: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의 서문과 선언에서는 '우리는 극빈을 포함한 모든 형태와 차원의 빈곤을 근절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최대의 글로벌 과제이자 하나의 필수 요건을 인식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빈곤으로 인해 인간의 존엄성을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이들의 기본권이 무엇보다 절실함을 나타내는 대목입니다.

빈곤은 생활하는 데 있어야 할 자원이 없거나 부족한 상태를 말하지만, 절대 빈곤은 기아와 영양실조, 교육 및 생활 서비스에 대한 제한, 사회적 차별과 배제, 의사결정 참여의 제약 등이 포함되는 더욱 심각한 결핍을 의미합니다. 하루 1.9달러 미만으로 살아야 하는 이러한 절대 빈곤 인구의 대부분은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에 살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어린이 다섯 명 중 한 명은 극심한 빈곤 속에 살고 있으며, 어린 시절의 가난과 박탈의 부정적인 영향은 평생 흔적을 남깁니다.

「유엔지속가능발전 보고서 2020」에 따르면, 2020년은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1990년 이후 30년 만에 처음으로 직전 기간 대비 전 세계 빈곤율이 증가해 2017년 수준으로 역행할 것이라고 예측됩니다. 또한 SDGs의 목표 달성 기한인 2030년에도 전 세계 인구의 6%가 여전히 극심한 가난에 처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빈곤은 국내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2018년 기준 한국의 기초생활수급자는 174만 명을 넘어섰으며, 2014년 이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년실업률뿐만 아니라 사회의 양극화도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1987년 10월 17일, 10만명의 군중이 모여든 프랑스 파리의 트로카데로 광장에서는 평생을 빈곤퇴치 운동에 헌신한 조셉 레신스키 신부의 주도로 '절대빈곤 퇴치운동 기념비'가 세워졌습니다. 이날은 5년 후인 1992년 UN이 제정한 '빈곤 퇴치의 날'의 시초가 되기도 했지요. 이 기념비에는 "빈곤이 있는 곳에 인권침해가 있다. 인권을 보호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다"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 말처럼 '모든 사람은 존엄하다'라는 명제가 성립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은 바로 빈곤 종식입니다. 코로나19로 더욱 어려운 이 시기에, 타인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는 유일한 생명체로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배고픔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참고자료]

- un.org "International Day for the Eradication of Poverty"
- United Nations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Report 2020"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 종식

코로나19로 인해
한 세대만에 처음으로
절대빈곤 증가

2020년, 1억1900만-1억2400만 명이
추가로 절대빈곤 상태에 내몰렸다



2030년

전세계 빈곤율
7%로 전망



빈곤퇴치 목표 달성 난항



2021년 4월 기준,
118개국

재난위험 경감전략 보고
2015년 45개국 대비 증가

세계 각국 정부가 코로나19에 대응해
1600여 개 단기 사회 보호 조치 시행



그러나 여전히 40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혼란에 대응하는 최고의 백신은 식량

백주영 브릿지팀 전문관

세계에는 모든 사람이 충분히 먹고도 남을 만큼의 식량이 있지만, 여전히 6억 9천만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대유행은 기존의 기아 문제와 식량 위기를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봉쇄 조치와 무역제한 때문에 식량 교역에 차질이 생기기도 했고, 소득이 줄어든 취약계층은 영양가 있는 식량을 구하기가 더욱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지난 2020년 10월 노벨위원회는 기아퇴치에 힘쓴 세계식량계획(WFP)을 2020년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하며 “코로나19 백신이 나오기 전 혼란에 대응하는 최고의 백신은 식량”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나와 가족이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충분히 먹길 원합니다. 음식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한 사람은 질병에 걸릴 위험이 더 높으며, 돈을 벌어서 생계를 개선해나가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수준의 식량을 공급받고 섭취하는 것은 기본적인 인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기아종식은 우리 모두를 위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전제조건이기도 합니다. 기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교육, 건강, 성평등과 같은 다른 지속가능발전목표도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기아종식을 위해 유엔이 제시하는 SDG2의 세부목표는 ▲모든 사람에게 안전하며 영양가 있는 식량을 충분히 보장하는 것 ▲모든 형태의 영양실조 종식 ▲영세 농산물 생산자의 농업 생산성과 소득 두 배 증대 ▲지속 가능한 식량 생산체제 확보 및 회복탄력적인

농업 관행 구현 ▲종자 및 동식물 다양성 유지 등입니다. 구체적으로 전문가들은 기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복력 있고 환경친화적인 식량시스템으로의 개편을 제안합니다. 예를 들어 물 부족 지역에서 물을 적게 사용하는 농법과 가뭄에 강한 작물을 개발하는 것은 식량시스템의 회복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입니다. 소규모 농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 농산물 공급 체계를 개선하는 방안 역시 지속가능한 식량시스템 구축을 위한 중요한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기아 인구와 다양한 기아의 원인들, 그리고 달성하기에는 멀게만 느껴지는 해결 방안들 때문에 어깨 무겁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기아 문제는 우리가 오늘 먹는 음식만큼이나 당연하며 가까이 있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당연하게만 여겨 온 우리의 세 끼 밥상을 준비하고 누리는 과정에 기아종식 목표에 대한 관심을 더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지역에서 생산된 식재료를 구입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최소화하는 등의 실천이 모인다면 우리는 기아종식에 한 발 더 가까워질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참고자료]

- news.trust.org "To Avert a Covid-Triggered Famine, Our Global Food Systems Need to Change"
- un.org "Zero Hunger: Why it matters"
- FAO, IFAD, UNICEF, WFP and WHO "The State of Food Security and Nutrition in the World 2020"
- 세계기아원조, 컨설팅드와이드 『2020 세계기아지수』



기아 종식, 식량 안보와 영양 상태 개선 달성, 지속 가능한 농업 장려

글로벌 팬데믹으로 세계 기아 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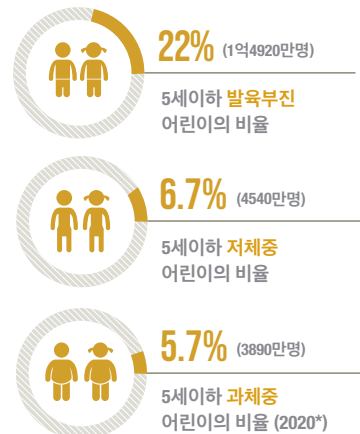
2020년, 전세계적으로
7천만-1억6100만 명이
팬데믹 영향으로
굶주림을 겪었을
것으로 추정



전 세계 영양결핍 인구수



팬데믹으로 인해 어린이 영양실조 악화 전망



*해당 2020년 추정치는 팬데믹 영향 미반영

가임기 여성의
약 3분의 1이
빈혈에 시달리고 있으며,
그 원인 중 일부는
영양부족



23억 7천만 명의 인구가
안정적인 식량 공급 및 영양 섭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20)

더 오래, 그리고 더 건강히 살기 위해

신종범 유네스코학교팀장

지속가능발전목표(SDGs)가 중요하다는 데는 큰 이견이 없겠지만, 그것이 지금까지 국내 정책이나 공론장, 대중 활동에서도 실질적 우선순위를 차지하지는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기후변화, 생태계 악화 등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의 배경과 원인이 된 위기 상황이 당장 도래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시각과 더불어, 기술 발전이 그와 같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술주의’의 존재감도 만만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는 이런 통념을 일소하고 글로벌 이슈가 ‘도둑처럼 갑자기’ 개인적 일상의 영역에 진입하는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내 가족과 동료, 이웃뿐만 아니라 전 세계 누구든지 불시에 감염시킬 수 있는 즉각적이고 현존하는 바이러스의 위협 앞에서, 이제 사람들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라는 SDG 3번 목표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실감하게 된 것입니다.

‘모든 연령층의 건강 보장과 복지 증진’을 목표로 삼고 있는 SDG3은 한 마디로 ‘건강하게 오래 살기’라고 이름 붙여도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3번 목표는 9개의 세부목표와 4개의 세부실행목표로 나누어지고, 9개 세부목표는 성격이 유사한 것끼리 몇 개씩 묶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산모사망률(3.1)과 신생아 및 5세 미만 영유아 사망자 수 감소(3.2)에 대한 것으로, 이 세부목표들은 생애 특정 단계에서의 사망률 감소를 목표로 정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선진국보다 개발도상국에서 출산 후 사망하는 임산부 사망률이 14배 이상 높고, 이들 지역에서 5세 미만 영유아 사망자 수가 5백만 명 이상에 달하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묶을 수 있는

세부목표들은 질병의 예방과 관리에 대한 것으로, 에이즈와 말라리아 등 전염성 질환의 감염과 확산 방지(3.3), 비감염성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 수 감소와 정신 건강 증진(3.4)이 있으며, 또한 약물 오남용(3.5), 교통 사고(3.6), 유해물질과 오염(3.9) 등 외부 위험요인에 대한 예방과 치료 관련 목표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 목표 3.7과 3.8은 보건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과 모두를 위한 의료 보장에 관한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 정부가 수립한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에서는 만성질환과 약물 오남용, 도로교통 사고에 대한 세부목표가 산모사망률이나 영유아 사망률 감소에 관한 세부목표보다 앞에 배치되어 있고, 특별히 ‘저출생 극복과 인구고령화 대비’와 같은 국가 특화형 목표가 추가된 것이 눈에 띕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지난 2020년 12월에 내놓은 ‘세계보건전망’에 따르면, 인간의 평균 수명이 2000년 67세에서 2019년에는 73세로 늘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자료를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는 비록 과거에 비해 더 오래 살게 되었지만 그렇게 늘어난 수명 중에 건강하게 사는 기간은 평균 5년에 불과하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얼마나’ 보다는 ‘어떻게’ 오래 사느냐가 더욱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건강하지 못한 채 오래 사는’ 비극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SDG3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우리의 관심과 참여가 꼭 필요합니다.

[참고자료]

- ncsd.go.kr (국가지속가능발전포털)
- who.int "WHO reveals leading causes of death and disability worldwide"



모든 연령층의 건강한 삶 보장과 복지 증진

팬데믹으로 인해

건강보건 분야 개선 정체 및 역행

예상수명 단축



90%의 국가에서 여전히 필수 보건 의료 서비스의
혼란을 겪고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

10년간 진전을 보였던



재생산건강



모성건강



아동건강

코로나19로 인해
정체 또는 역행

데이터 부족으로

코로나19의 실질적 영향 파악에 어려움



사망신고제도를 갖춘 국가
신고율 최소 75%



의료보건 종사자

팬데믹으로 인해
많은 지역에서 수급인력 부족으로
버틸 수 있는 한계에 봉착



간호사와 조산사

150명
10000명 인구당

북미

10명
10000명 인구당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보편적 의료보장을 위한
투자 확대 절실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의 밑바탕

김현규 교육팀 전문관

교육이라는 분야는 SDG4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나머지 16개 목표와도 유기적인 관련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은 양질의 교육에 대한 접근을 높이는 것이야말로 지속가능발전, 빈곤퇴치, 양성평등, 청년의 사회 참여 등에 필요한 가장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천명했습니다. 한마디로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수단과 목적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교육 강국’으로 자부심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에도 여전히 양질의 교육이 필요한 분야가 적지 않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나라의 청년층은 세계 최상위 수준의 언어 및 수리력을 갖고 있는 데 반해 중장년층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국제성인역량조사 2013), 2015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세 이상 성인인구 중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중학교 학력 미만 성인인구가 517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SDG4는 단지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의 과제이기도 하다는 뜻이지요.

SDG4의 핵심 메시지는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과 평생학습 기회 증진’입니다. 적잖은 단어와 많은 의미가 담겨있는 메시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쓰인 단어 하나하나를 수많은 사람들의 고민과 논의의 결과물이며, 2030년까지 국제사회가 교육분야에서 성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야심찬 목표이기도 합니다. SDG4는 7개의 세부목표(1-7)와 3개의 이행수단(a-c)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목표들은 교육의 영역별 달성 목표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들어 국제사회는 지속가능발전목표의 달성에 있어 교육을 SDG4에만 국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 모두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도구로서 교육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것이지요. 유네스코가 선도적으로 추진해온 지속가능발전교육(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SD)은 지속가능발전 달성을 위해 교육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으며, 2020년 공식적으로 시작된 ESD의 새로운 10개년 실천 프로그램인 ‘ESD for 2030’에도 이러한 국제사회의 주안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지속가능발전목표와 더불어 이를 위한 교육 활동을 추진한 지 어느덧 5년이 지났습니다.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교육을 추구하는 데 있어 국가별로 자율적인 이행과 더불어 모니터링 및 평가에 대한 책임이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왔지만, 여전히 갈 길은 먼 실정입니다. 2030년까지 설정했던 범세계적 목표들이 효과적으로 달성되기 위해서는, 지구공동체의 일원인 우리 모두가 지속가능발전목표와 교육이 담고 있는 의미와 가치를 명확히 이해하고,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참고자료]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문답으로 풀어보는 지속가능발전목표4 교육 2030』, 2018
- UN 『United Nations Millennium Declaration-UN General Assembly Resolution 55/2』, 2000
- UN 『The future we want-UN General Assembly Resolution 66/288』,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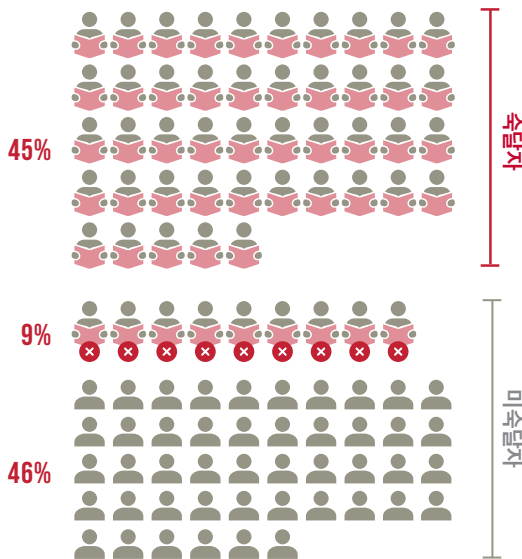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과 평생학습 기회 증진

코로나19로

지난 20년간 거둔 교육의 성과가 후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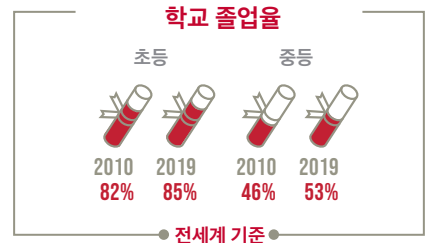
2020년, 초중등 학생의 9%인 1억1백만 명이 최소 읽기능력 수준을 갖추지 못했다



취학전 교육
2010년 65%에서
2019년 73%로 증가

현재 많은 유아들의 교육은 가정에서 보호자에 전적으로 의존

천천히 증가하던 학교 졸업률 악화 예상



더 나은 회복을 위한 기본적인 학교 설비가 많은 국가에서 부족

최빈국에서 기초 설비를 갖춘 학교의 비율 (2016-2019)



인류가 잠재력을 완전히 발휘하기 위해

권송 교육팀 전문관

성평등은 2015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가 채택되기 이전에도 국제사회의 개발협력목표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2000년부터 2015년까지 국제사회가 노력을 기울였던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의 세 번째 목표(MDG3) 역시 '성평등 증진 및 여성 역량 강화'였지만, 그 세부 목표는 성별에 따른 교육격차를 없애는 것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결과 MDG3는 전 세계적으로 여아 교육 확대라는 큰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여성차별의 현실과 성차별을 일으키는 구조에 대해서는 다루지 못했다는 한계를 남겼습니다. 이에 대한 성찰을 반영해 2015년 채택된 지속가능발전목표에서는 다섯 번째 목표(SDG5)로 '성평등 달성 및 모든 여성과 여아의 역량 강화'를 설정하고, 9개에 달하는 세부목표도 마련했습니다.

SDG5의 세부목표는 '모든 곳에서 여성과 여아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종식한다'(SDG 5.1)는 첫 번째 세부목표를 필두로 '인신매매와 성착취 등 여성과 여아에 대한 모든 폭력 근절'(SDG 5.2), '아동 강제 조혼과 여성 성기 절제와 같은 모든 유해 행위 근절'(SDG 5.3)을 목표로 명시했습니다. 이어서 SDG 5.4는 공공서비스·인프라·사회보장 정책 마련과 더불어 가정 및 가족 내 공동의 책임감을 증진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무급 돌봄과 가사노동을 인식하고 이를 소중하게 여길 것을 주문합니다. 또한 '정치·경제·공공 영역에서 여성의 온전한 참여와 동등한 리더십 기회 보장'(SDG 5.5),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에 대한 보편적 접근 보장'(SDG 5.6)도 2030년까지 국제사회

가 달성하고자 하는 세부목표로 삼았습니다.

성평등을 추구하는 것은 단지 '여자에게만 좋은 세상'을 만들자는 것이 아닙니다. 인류의 절반이 여성인 상황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과 억압을 뿌리뽑을 수 없다면, 인류 전체의 가능성과 잠재력 역시 절반만 발휘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성평등은 건강, 교육, 안전 등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여러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돕고, 인류 모두에게 더 나은 삶을 가능하게 해 줄 것입니다. 무엇보다 모든 여성과 여아 역시 인간으로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 존재이기에, 국제사회는 그 누구도 이러한 기본권을 침해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성평등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SDG5는 지구촌에 살고 있는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실천이 있어야만 달성할 수 있는 목표입니다. SDG 5.1에서 강조했듯, '모든 곳'에서의 성차별을 종식하기 위해서는 각자의 가정에서부터 학교와 일터에 이르기까지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구성원들의 의식 속에 성평등이 뿌리내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 속에 성평등이 좀 더 자리잡게 된다면 우리 각자의 삶도 더욱 평등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시작으로 주요 명절때마다 (SDG 5.4를 떠올리며!) 성별 구분 없이 함께 명절 음식을 준비하고, 함께 설거지를 하며, 서로의 돌봄과 가사노동에 고마운 마음을 표현해 보면 어떨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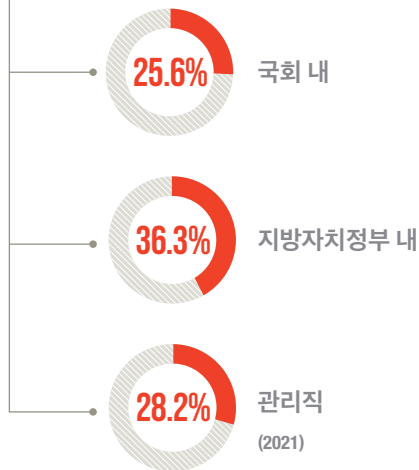
성평등 달성 및 모든 여성과 여아의 역량 강화

의사결정과정에서 **여성의 동등한 참여**
 코로나19 대응과 극복에 필수적이거나

성별 균형 달성은 아직 요원



여성 비율



여성 대상 폭력이

용납 불가 수준으로 지속,
 팬데믹으로 인해 더욱 심화



여성 3명 중 1명(7억3600만명)이

15세 이후 평생 **최소 1번 이상**의
 신체적/성적 폭력을 겪음
 [2000-2018]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앞으로 10년간



최대 천만 명의 소녀가
 조혼의 위험에
 처할 것으로 예상

팬데믹 이전 추산된
 조혼 소녀 인구 1억 명과 별도

팬데믹으로 인해 여성들은 더 많은 **무보수 가사·돌봄 노동**을
 부담하고 있으며, 노동 시장 밖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미 여성은 남성의 **약 2.5배에 달하는 시간**을
 무보수 가사·돌봄 노동에 할애하고 있는 상황

물, 인권의 필수요소이자 모든 SDGs의 연결고리

최연수 과학청년팀 전문관

깨끗한 물과 위생에 대한 접근성은 건강한 삶을 지속하는 데 필수적이며, 모든 인간이 존엄성을 유지하는데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또한 물은 빈곤 감소와 식량 안보, 평화 및 인권, 생태계 및 교육에도 필수적이며, 물의 효율적인 관리는 식량과 에너지 생산, 양질의 일과 경제 성장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깨끗한 물과 위생에의 접근과 사용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전반의 달성을 가능하게 하는 매우 기초적인 목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물은 기후변화와도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의해 폭염, 폭풍 해일 등이 심해지면 물의 가용성이 떨어지고, 수온이 상승하면 하천의 정화 능력이 떨어져 수질이 악화되고 병원성 오염 위험도 커집니다. 뿐만 아니라 숲과 습지가 줄어들어 생물다양성 감소, 농업, 어업 등에 영향을 미치며, 결국 인간의 기본권과 생태계 전체를 위협하게 됩니다. 한편으로 기후변화 위기 해결의 열쇠 또한 물이 가지고 있습니다. 폐수의 생화학적 처리공정에서 발생하는 물 소비와 손실을 줄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고, 습지를 보존하고, 수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임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물과 기후변화 대응을 상생의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은 SDG6뿐만 아니라 기아, 빈곤, 건강, 에너지, 산업 등 다른 SDGs 달성에도 기여하는 것입니다.

SDG6은 SDG5(성평등)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유니세프에 따르면 상수도가 발달하지 않은 국가에서 물 길은 일은 여성과 여아들이 주로 담당하고 있으며, 이

들이 몇 시간에 걸쳐 물을 길어 오는 동안 교육의 기회가 박탈됩니다. 또한 성별로 분리된 화장실이 확보되지 않은 곳에서는 생리를 시작한 여성의 학교 중퇴율이 높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깨끗한 물이 원활하게 공급되지 못하면 육아와 돌봄을 수행하는 데에 몇 배의 시간과 에너지가 소요됩니다.

이처럼 다양한 SDGs에 영향을 미치는 SDG6의 구체적인 목표는 ▲안전한 식수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여성과 여아 및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두의 공중위생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며 ▲오염 저감을 통해 수질을 개선하고 ▲물 사용의 효율을 높여 물 부족을 줄이고 ▲초국경 협력을 통해 통합된 수자원 관리를 실현하며 ▲물과 관련한 생태계를 보호하고 복원하는 6가지입니다.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이를 달성하기 위해 역량강화 지원과 국제협력을 확대하고, 물과 위생 관리를 개선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참여를 지원하고 강화하는 것을 세부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전 지구적 차원의 기후변화와 팬데믹 상황을 맞이한 지금이야말로 누구도 물과 위생으로부터 소외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힘써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책임감을 갖고 물 연구 및 개발에 투자하는 한편, 우리 각자는 생활 속 다양한 실천을 통해 SDG6을 실현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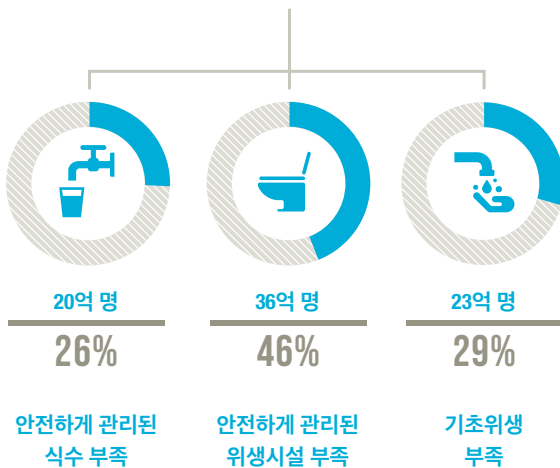
- ncsd.go.kr "UN 지속가능발전목표 169개 세부목표 및 지표"
- unicef.org "UNICEF: Collecting Water Is Often a Colossal Waste of Time for Women and Girls"
- UN 『세계 물 개발 보고서』(2019 및 2020년판)
- 여성정책연구원 『젠더리뷰』(2020년 가을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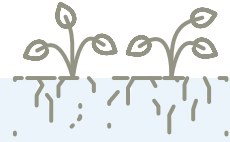
모두를 위한 물과 위생의 이용가능성과 지속가능한 관리 보장

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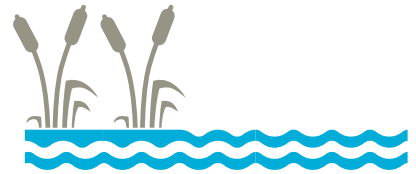
수십억 명의 인구가 아직도
안전한 식수와 위생시설의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보편적으로 갖춰야 할 기초요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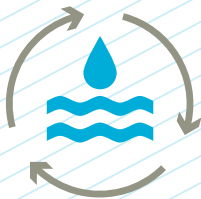


23억 명의 인구가
물부족 국가에 거주
(2018)



1970년부터 2015년까지
자연 습지의
35% 감소

↓
산림 감소비율의 3배



129개 국가가 2030년까지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 달성을 위한 정상궤도에서 벗어나 있음

↓ ↓ ↓
현재 진전율의 2배로 개선 필요

시대와 세대를 초월하는 '에너지 정의' 달성의 이정표

백영연 국제협력팀 전문관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가 모두 그러하듯, SDG7 역시 내용상 다른 목표들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습니다. 에너지는 우리가 먹고, 자고, 이동하고, 일하고, 휴식하는 모든 과정에서 빼놓고 생각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으로, 인류의 웰빙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가치 있는 재화가 그러하듯 에너지 역시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충분히 향유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동시대를 살아가는 전 세계 사람들을 대상으로 '수평적'으로 분석해도 에너지 이용은 불평등한 양상을 보이며, 앞선 세대와 현 세대, 그리고 다음 세대까지를 '수직적'으로 생각해도 에너지 이용은 시대별로 큰 차이를 보입니다. 선진국에서 에너지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계층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에너지 관련 기반시설이 부족하거나 국민 대다수가 에너지 비용을 낼 수 없는 형편인 개발도상국에서는 에너지에 대한 접근조차 매우 제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우주에서 지구의 야경을 바라보았을 때 미국, 유럽, 한국과 같은 선진국의 영토는 밝은 빛으로 가득한 반면, 아프리카에서는 이집트와 남아공, 나이지리아와 같은 일부 국가를 제외하면 대륙 전체가 암흑에 덮여 있는 것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에너지 생산과 사용이 평등하지 못하다는 점도 문제지만, 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과정에서 환경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다는 점도 큰 문제입니다. 산업혁명 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인류가 화석연료를 무분별하게 사용한 결과 수많은 생태계가 파괴되고 전 지구적 규모의 기후변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다음 세대에 전가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에너지의 특성을 고려해 SDG7은 '적정한 가격'과 '신뢰할 수 있고 지속가능한 현대적인 에너지'의 보장을 집중적으로 강조합니다. 에너지에 대한 접근이 모든 사람에게 '수평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오늘날의 무분별한 에너지 이용의 피해가 미래 세대에 부채로 남겨지지 않도록 '수직적'인 측면에서도 지속가능하며 현대적인 에너지의 이용을 실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에너지의 이용이 당장 나의 삶뿐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미래 세대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보다 현명한 에너지 이용을 실천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바로 그 이정표를 SDG7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적정한 가격의 신뢰할 수 있고 지속가능한 현대적인 에너지에 대한 접근 보장

전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위험하고 비효율적인
조리시설을 사용**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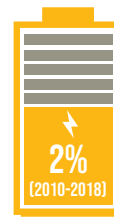
7억5900만 명이
전기 공급에 어려움



그 중 4분의 3은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지역 거주 (2019)

에너지 효율성 개선이 더욱 촉진되어야

연간 효율성 개선율



특히 난방 및 교통 분야에서 현대적인 재생에너지 사용 촉진 필요

에너지사용총량 중 현대적 재생에너지 비중



전기분야
25.4%



난방분야
9.2%



교통분야
3.4%

‘얼마나’가 아닌,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에 관한 약속

장자현 문화팀 전문관

1970년 11월13일, 서울 동대문 평화시장에서 일하던 전태일은 22살의 나이에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라고 외치며 불꽃으로 산화했습니다. 그로부터 50년, 대한민국은 이제 국내총생산 기준 세계 11번째의 경제 대국이 되었지만, “같은 인간인데 어찌하여 빈한 자는 부한 자의 노예가 되어야 합니까?”라는 전 열사의 절규는 아직도 메아리처럼 이 땅을 떠도는 듯 합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을 제일 먼저 감당해야 하는 사람들은 불안한 고용 상태와 가혹한 노동 조건을 감내하고 있는 노동자들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3명 중 1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비대면시대에 늘어난 택배 물량을 감당하지 못해 2020년 한해에만 택배노동자 16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했습니다.

아직도 전 세계 노동 인구의 61%가 넘는 20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노동자를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비공식적인 경제분야에 종사하고 있으며, 1억 6800만 명이나 되는 어린이들이 학교 대신 일터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 15-24세의 젊은이 중 22%는 제대로 된 교육과 직업훈련을 받지 못한 채 직업도 없는 NEET(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상태에서 불안정하고, 위험하며, 일한 만큼의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삶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지구촌의 GDP가 연평균 3% 이상 성장했음에도 그러한 성장이 모든 사람들의 행복을 보장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각국이 규모만 키우는 경제성장이 아니라 포

용적인 질적 성장을 추구하도록 하기 위해 유엔과 국제사회는 ‘양질의 일자리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2030년까지 인류가 달성해야 할 8번째 목표로 정했습니다. ‘얼마나’보다는 ‘어떻게’에 방점을 두고 있는 SDG 8번 목표는 ▲국가별로 상황에 맞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추진하며 ▲경제 생산성을 위한 다양화, 혁신 및 업그레이드를 장려하고 ▲일자리 창출과 성장 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2030년까지 소비와 생산의 자원 효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을 강조합니다. 이와 더불어 ▲안전한 고용과 같은 일에 대한 같은 보수를 달성하고 ▲청년 고용, 교육 및 훈련을 촉진하고 ▲현대판 노예, 인신매매 및 아동 노동을 근절하고 ▲노동권 보호와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주문하며 ▲유익하고 지속가능한 관광을 촉진하고 ▲은행, 보험 및 금융서비스에 대한 보편적인 접근권을 향상시킬 것을 각국에 요청합니다. 이를 위해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국에 대한 ‘무역을 위한 원조’(Aid for Trade)를 확대하고 2020년까지 청년 고용 전략을 개발·실행하는 한편, 국제노동기구(ILO)의 ‘세계일자리협약’ 추진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SDG8을 달성하는 데는 우리가 일상에서 표하는 사소한 관심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노동 관련 뉴스나 신문, 다큐멘터리를 보고 댓글로 의견을 공유하는 사소한 참여도 정부와 기업에 이 사회의 많은 눈들이 자신들을 관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작은 관심과 목소리, 행동이 모여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 전체의 든든한 안전망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지속적이고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 촉진, 모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팬데믹으로 인해
2억 5500만 개에 달하는
정규직 일자리가 없어짐



글로벌 경제위기(2007-2009)
기간의 4배 수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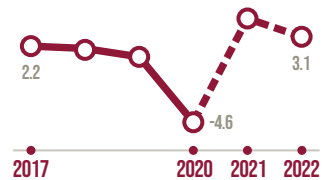


16억 명
비공식
경제활동
인구

→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받지 못하며, 팬데믹으로
→ 심각한 타격을 입음

경제 회복 진행중

전세계 1인당 실질 국내총생산(GDP)
(2017-2022)



그러나 많은 국가에서 팬데믹 이전 수준의
경제 회복은 2022-2023년에야
가능할 것으로 예상

국제 관광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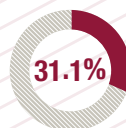
2019년 15억 명에서
2020년 3억8100만 명으로 감소

전세계 관광업이 2019년
수준으로 돌아가기까지
4년 이상 소요 예상

팬데믹으로 인해 교육이나 직업훈련을 받지 않는 청년 무직자(NEET) 증가 예상



여성 청년층의



교육이나 직업훈련을 받지 않는
청년 무직자 비율 (2019)

남성 청년층의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기초체력

장지원 커뮤니케이션팀 선임전문관

코로나19를 겪으며 일상의 많은 부분이 멈춰 버린 요즘 부쩍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손을 씻는 깨끗한 수도물, 재택 근무와 원격 수업을 가능케 하는 인터넷과 디지털 환경, 가족이나 친구와 직접 만나지 않고도 소통할 수 있는 전화, 필요한 물건이나 음식을 문 앞까지 바로 갖다주는 물류 시스템, 이런 것들이 없었다면 지금 같은 시기에 일상을 유지하기란 훨씬 힘들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당연한 듯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누군가에게는 전혀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니, 그간 별 생각 없이 대했던 많은 것들이 새삼 고맙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흔히 '인프라'라고 일컫는 사회기반시설은 도로, 위생, 전력, 수도, 정보통신 등과 같이 생산 활동이나 일상 생활에 필수적인 물리적인 기초 환경이나 시스템을 말하는데, 아직 많은 개발도상국에서는 이러한 기본적인 사회기반시설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전세계에서 23억 명의 인구가 기본적인 위생시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개도국에 사는 26억 명의 인구는 안정적인 전기 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9년을 기준으로 전세계 대부분이 2G 네트워크권 안에 들어왔지만 여전히 저개발국에서는 5명중 1명 정도만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회기반시설은 건강 증진과 교육 제공, 이동의 자유 등 삶의 기본적인 질을 보장할뿐 아니라, 산업의 발전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도 필수적입니다. 도로와 교통시설은 자원의 수급 및 상품과 서비스의 효율적인 유통을 가능하게 하고, 원활한 에너지 수급은 작업환

경을 개선해 노동 생산성을 높이며, 정보통신기술은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교환과 업무의 시스템화를 통해 비용과 시간을 단축하고 산업 고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산업이 발달하면 일자리와 소득 창출을 통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고, 혁신은 산업 생산성과 부가가치를 높이는 한편 환경적인 문제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하게 합니다.

따라서 지속가능발전목표 9번(SDG9)은 경제 성장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중요한 동력이 되는 세가지 요소, 즉 사회기반시설, 산업, 혁신에 주목합니다.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경제 성장이 필수적이며, 그로 인해 창출된 부를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전제 아래 SDG9는 복원력 있는 사회기반시설을 구축하고,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를 촉진하며, 혁신을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특히 저개발국의 정보통신 기반시설 확충과 산업 발전을 위한 초국경적인 협력을 촉구하는 한편, 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친환경 기술 도입과 연구 개발을 장려합니다. 자연히 이 목표는 빈곤 퇴치부터 건강 증진, 양질의 교육과 책임있는 소비와 생산에 이르기까지 SDG의 다른 목표들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일구어내기 위한 뼈대이자 기초 체력, SDG9에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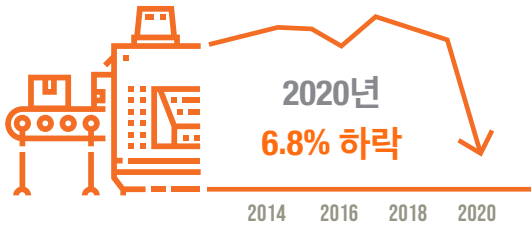


복원력 있는 인프라 구축,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산업화 촉진, 혁신 장려

전 세계 제조 생산 급격히 감소



코로나19의 여파로



2020년 후반

중간 및 첨단기술 제품

제조업이

경제 회복 견인

2019년 같은 기간 대비 4% 성장
(2020년 4분기)

지방 도로연결망 개선은

빈곤 감소에 도움



25개국 5.2억 명의 지방거주 인구 중
약 3억 명이 원활한 도로 이용에 제약

(2018-2019)

2020년 항공 여행 수요

사상 최악의 불황



항공 여객 2019년 45억에서 2020년 18억으로 급감

60% 감소

코로나19와 같은 위기에 대한 대응책 마련 위해

연구개발(R&D)에 대한 투자 증대 필수적

글로벌 연구개발
투자규모 2.2조원
(2018)



백만 명당
연구자 수 1235명
(2018)

세상의 '약한 고리'가 없어질 때까지

김슬아 문화팀 전문관

오늘날에도 우리 사회의 많은 사람들은 수입, 성별, 나이, 장애 유무, 성적 지향, 인종, 계층, 민족, 종교, 기회에 따른 불평등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화되는 차별과 불평등은 범죄와 질병, 환경오염과 같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며, 그 피해를 또다시 취약계층이 입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사회 내에서뿐만 아니라 지구촌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경제력이 약한 국가의 의견은 의사결정 과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며, 이들이 소외된 채 도출되는 결정은 기존의 질서를 강화하고 구조적 불평등과 차별을 고착시킴으로써 인류 전체의 발전을 저해합니다.

따라서 개인의 자아 실현, 이를 통한 사회와 국가 발전, 나아가 인류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는 불평등을 해소하고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유엔이 '국가 내·국가 간 불평등 해소'를 열 번째 지속가능발전목표(SDG10)로 선정한 이유입니다. 이 목표는 구체적으로 국가 내에서는 ▲저소득층의 수입 증가 ▲모든 이에 대한 포용 증진 ▲정책적 접근을 통한 불평등 해소를, 국가 간에는 ▲세계 경제 및 금융시장 규제와 개발도상국의 대표성 강화 ▲이주와 이동의 안전성 보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즉, SDG10은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 대한 집중적 지원을 통해 이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참여를 도모하여 모든 사람이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속가능발전목표가 '가장 취약한 이들의 요구가 충족되는 정의롭고, 공정하며, 관대하고, 개방적이며 포용적인 세상'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SDG10

은 전체 SDG를 관통하는 주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취약 계층에 대한 '특혜'가 열심히 노력한 사람들을 '역차별'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각자의 '출발선'이 다른 사회에서, 그저 각자의 노력만으로 얻은 결과를 정당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평등한 기회가 보장되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필수적이며, 도움이 필요했던 이들이 지원을 받아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고 사회 발전에 기여하게 되면 그 혜택 또한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은 노약자, 장애인, 저소득층 등 우리 사회의 '약한 고리'가 얼마나 외부의 충격에 취약한지를 더욱 잘 보여주었습니다. 타인에 대한 의존도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오늘날, 구조적 불평등이 해소되지 않은 채 각자의 능력과 노력만을 강조해서는 우리 모두의 발전을 이룰 수 없다는 것도 보여주었습니다. 공중보건을 위해서도,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도, 사회적 취약 계층을 지원하고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단기적 지원과 중장기적 전략이 필요합니다. 구조적 불평등과 차별이 하루아침에 없어지기는 어렵겠지만, 우리 자신부터 무의식 속 숨어있던 불평등과 차별을 인식하고 바뀌어나가는 것에서부터 시작해 보면 어떨까요? 작은 인식의 변화가 어느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 사회 구조의 변화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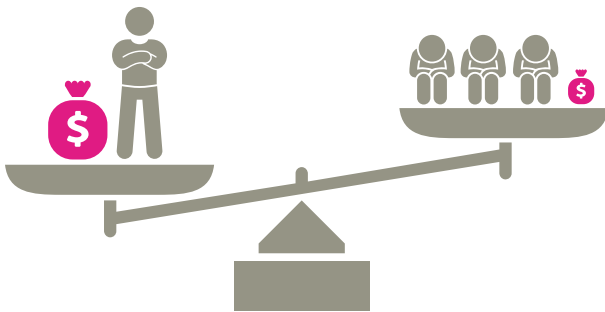
[참고자료]

· un.org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10 - Reduced Inequalities: Progress and Prospects', 'Reduced Inequalities: Why It Matters'



국가 내·국가 간 불평등 감소

팬데믹으로 인해
경제위기 이후의
소득불평등 개선 추세가
다시 악화될 것으로 추정



코로나19로
개발도상국 신흥 시장에서
지니계수 평균 6% 상승 예측

지니계수는 소득불평등을 나타내는 지표로 0에 가까울수록 소득이 평등하게
분배되고, 100에 가까울수록 빈부격차가 심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전 세계 난민인구 비율이
2010년 이래 2배 이상으로 증가

10만 명당
311명이 난민 (2020)

해외이주노동자
(본국)송금수수는 6.5%로
사상 최저치 (2020)



3% 목표치 달성을 위해
추가 개선 필요



2020년, 전 세계의 이주 도중
사망·실종자수 4186명 기록

도시의 건강은 곧 우리의 건강

손다희 문화팀 전문관

지구촌을 뒤덮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사례 중 90% 이상이 도시 지역에서 발생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특히 약 1억 명에 달하는 인구 밀도가 높은 빈민가 지역의 주민들은 누구보다 큰 고통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코로나19의 창궐 이전에도 과밀한 인구의 도시들은 크고 작은 사회 문제에 맞닥뜨려 왔습니다. 불평등, 대기와 환경오염, 부족한 인프라, 과도한 에너지 소비 등이 그 대표적 문제입니다. 전 세계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빠른 속도로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따라서 ‘도시와 거주지’는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이야기하는 데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 중 하나입니다. 때문에 유엔은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와 거주지 조성’을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열한 번째 목표(SDG11)로 정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도시의 생활을 일단 편리하고 쾌적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도시화로 인한 문제들을 ‘나 자신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사회 각 분야 및 타인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언제든 이러한 문제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불평등은 사회의 안정과 개인의 안전 문제에 맞닿아 있고, 대기와 환경의 오염은 우리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사회구성원의 건강은 곧 생산성으로, 더 나아가 그 사회의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한다면 이러한 사항들을 세심하게 고려한 도시계획이 결국 각각의 사회 구성원들에게도 양질의 삶을 보장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SDG11은 ▲모든 시민이 적정 수준의 주택에 거주하며 ▲기본적인 사회의 인프라와 서비스를 누리며 ▲적정비용의 안전한 교통체계를 이용하며 ▲자연재해나 재난의 위협에 대비하고 ▲공공의 시설과 녹지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나아가 ▲문화와 자연유산을 보호하고 ▲폐기물 및 대기 오염 물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도 주문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달성하기 위해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하며, 통합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SDG11의 달성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나와 내 가족, 이웃이 함께 살고 싶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역사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적절한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아이가 매일 걸어 다니는 통학길이 안전한지, 한밤중에도 안전하게 동네를 산책할 수 있는지,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시설과 병원은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주민 모두가 이용하는 공원이 깨끗하게 정비되어 있는지 등, 주변에 대한 각자의 관심이 SDG11을 달성하는 첫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지금, 오늘 내가 보낸 하루를 다시 한 번 되짚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 도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각자의 하루가 더 나아질수록, 우리는 지속가능 목표 달성에도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자료]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우리의 지속가능한 도시』(2017)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와 거주지 조성

팬데믹으로 인해

빈민가 거주자

실태 악화



10억 이상의 빈민가 거주인구 중

대다수가 3개 지역에 분포 (2018)



16%

전세계 도시지역에서

도로와 공공공지의

평균비율 (2020)



목표치 미달

도로 30%, 공공공지 10-15%

156개국에서

국가도시정책 수립



그러나 그중 절반만이
실제 이행 단계

전세계 도시 인구의 불과 절반만이

대중교통에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다 (2019)



나의 소비 선택으로 이루는 지속가능한 미래

권송 교육팀 전문관

미국에서 매년 추수감사절 직후의 금요일인 ‘블랙 프라이데이’는 연중 최대·최고의 세일 시즌이 시작되는 날로 세계적으로도 유명합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쇼핑에 열을 올리는 이날을 ‘아무것도 사지 않는 날’(Buy Nothing Day)로 정하고 이를 실천에 옮기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도 알고 계신가요? 1992년 캐나다의 테드 데이브(Ted Dave)가 시작한 이 캠페인은 어느덧 65개 국가로 퍼져 나갔고, 한국에서도 1999년부터 이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좋은 물건을 값싸게 구입한다는 것은 물론 소비자로서 기분 좋은 일이지만, 딱히 필요치 않은 물건을 단지 할인을 이유로 구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소비는 내 주머니 사정을 안 좋게 만드는 일인 동시에, 지구의 환경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엔 역시 지속가능발전 목표에서 인간의 소비 및 생산 활동이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인식이 널리 공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열두 번째 지속가능발전목표(SDG12)로 ‘책임있는 소비와 생산’을 선정했습니다.

SDG12에는 11개의 세부목표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2012년 유엔 지속가능발전회의에서 채택한 “지속가능 소비 및 생산 10년 프로그램”의 이행(SDG12.1), 천연자원의 효율적인 사용 및 지속가능한 관리 달성(SDG12.2)이 있습니다. 세 번째 세부 목표는 ‘2030년까지 소매 및 소비자 수준에서 1인당 식품폐기물을 2분의 1로 줄이고 식품 생산 및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식품 손실량을 감축’하는 것인데, 이는 매년 모

든 식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3억 톤 분량의 음식이 버려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목표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화학물질 및 모든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고(SDG12.4), 예방·감축·재생·재사용을 통해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SDG12.5), 기업이 보고체계에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를 반영하고 지속가능한 기업 활동을 이행하도록 권고하는 것(SDG12.6)도 인류가 2030년까지 함께 달성하고자 하는 공동의 목표입니다.

최근 무(無)라벨 투명 생수 제품이 출시되고 있고, 관련 매출도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각자의 소비 패턴 변화가 만들어낼 수 있는 유의미한 변화의 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0년 말 페트병 분리 배출 법안이 시행되면서 많은 소비자들이 페트병에서 라벨을 떼내는 것에 대한 불편함과 불만을 표현했고, 이에 몇몇 생수 판매 기업이 무(無)라벨 제품을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제품이 소비자의 선택을 받아 매출이 증가하자 최근 대부분의 생수 판매 기업이 라벨 없는 생수 제품을 출시하고 있고, 친환경 소비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정부와 기업, 소비자가 함께 만들어 내는 변화는 SDG12의 달성에 기여할 것입니다. 나아가 정부(정책), 기업, 소비자가 함께 힘을 모을 때 지속가능한 미래도 만들어 갈 수 있으리라는 믿음도 더 커질 것입니다.

[참고자료]

- un.org "Goal 12: Ensure sustaina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patterns"
- wikipedia.org "Buy Nothing D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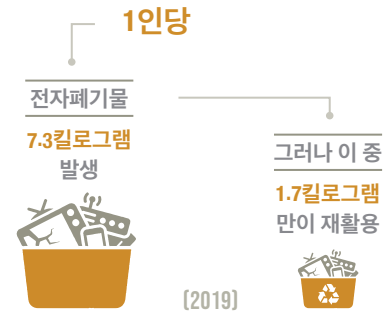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양식의 보장

전세계 “물질발자국”
2000년에서 2017년 사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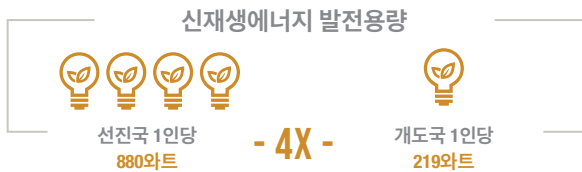
70% 증가



전자제품 폐기물의
지속적인 증가
무책임한 배출



개발도상국은
재생에너지 관련 개발되지 않은
막대한 양의 재생에너지 개발 여력이 남아있음



개선 추세에도 불구하고,
화석연료 보조금은
파리협정과 2030 의제의
달성에 지속적인 위협요인



2020년까지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을 위한
10개년 계획의 일환으로서

700건의 정책과 이행활동 보고됨
(83개국과 유럽연합)

하나뿐인 지구를 위한 과감하고 긴급한 조치

최연수 과학청년팀 전문관

기후변화는 인간이 스스로 초래한 위기입니다. 인간의 행동으로 인해 가중되고 있는 지구 온난화는 세계 모든 국가에 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극심한 홍수와 가뭄, 산불 등 기후 재해가 더 자주 일어나고 있으며, 그 결과 가장 취약한 사람들의 삶과 생계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정확히 파악하기란 불가능하지만, 확실한 것은 그것이 지구상 모든 생명체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실천들을 담은 SDG13은 ▲모든 국가에서 기후 관련 위험 및 자연재해에 대한 탄력성과 적응 능력을 강화하고 ▲기후변화 조치를 국가 정책, 전략 및 계획에 통합하며 ▲기후변화 완화, 적응, 영향 감소 및 조기 경보에 대한 교육, 인식 제고 및 인적·제도적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을 3가지 구체적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따라 선진국들이 공동으로 매년 1천억 달러를 동원하고, 최빈국과 소도서 개도국에서 효과적인 기후변화 대응 계획 및 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여성, 청년, 지역사회 등의 참여를 지원하고 강화하는 것을 세부 목표에 담았습니다.

SDG13의 실현을 위한 핵심 약속 중 하나는 2015년 12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채택한 파리 협약입니다. 이 협약은 산업화 이전의 지구 평균온도에 비해 지구의 평균온도 상승폭을 섭씨 2도 아래로 억제하고, 재정, 기술 및 역량강화 프레임워크

를 통해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처할 수 있는 국가의 능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아직은 부족하지만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2020년 11월 기준 125개 개발도상국이 기후 적응 및 복원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가적응계획을 수립했으며, 각국 정부와 민간 기업들도 재생 가능 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기업과 투자자들 또한 단지 '옳은 일'이기 때문이 아니라 경제적이고 합리적이기 때문에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천하기에는 아직 충분치 않습니다. 저탄소, 기후 탄력적 전환을 달성하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연간 투자가 필요하며, 더 혁신적이고 과감한 목표 설정과 긴급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기후변화는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전 세계적인 긴급한 위기입니다. 따라서 국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층위의 구성원들의 더욱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기후가 아닌 우리의 '생각'이 변해야 하며, 매일 매일의 내 선택과 행동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은 TV를 보며 그저 걱정만 할 때가 아니라, 더 큰 목소리를 내며 환경을 위한 선택을 실천에 옮김으로써 모든 것을 바꾸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바뀌지 않는다면, 어쩌면 기후변화가 모든 것을 바꿔버리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기후변화와 그로 인한 영향에 맞서기 위한 긴급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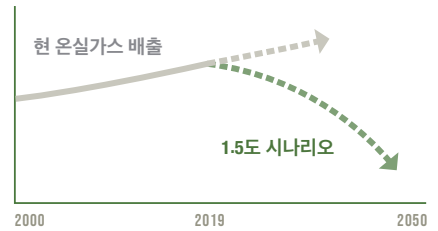
꾸준히 계속되는 기후 위기



2020년 산업화 이전 대비
이미 평균온도 1.2도 상승

앞으로 파리협정 1.5도 이내 제한 목표를
달성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

온실가스배출 증가에 대응해 탄소중립 경제로의 전환 필요



기후 금융 성장



2015-2016년 대비

2017-2018년
10% 상승,
연평균 487억 달러 규모

154개 개발도상국 중 125개국이

국가기후변화대응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진행중

최우선 분야



식량 안보와
생산



육상 및 습지
생태계



수자원



인간의 건강



핵심 경제 부문
및 서비스

바다는 우리의 근원이자 미래

최연수 과학청년팀 전문관

바다는 지구 최초의 생명체가 탄생한 장소이며, 아주 작은 플랑크톤부터 지구 최대의 동물인 고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바다는 산소를 만들고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한편, 기후를 조절하고 환경을 깨끗하게 합니다. 또한 다양한 자원의 보물 창고이자 재생가능에너지의 원천이며, 해양관광과 레저 등 여가를 즐기는 휴식처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바다는 지금 환경오염, 자원고갈,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온도 상승으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대로 해양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이 훼손돼 해양생물다양성이 떨어진다면 결국 우리가 바다로부터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줄어들어 경제, 사회, 보건, 안전 등에 큰 손실을 가져올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원인이 인간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손실을 줄이기 위한 해결책도 우리 스스로가 찾고 실천해 가야 합니다.

국제사회는 바다를 보존하고 회복시키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1994년에는 유엔해양법이 발효되어 공해상의 자원을 인류공동의 유산으로 규정하는 한편, 심해 공동 연구 및 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유엔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도 해양을 하나의 독립된 장으로 포함시켰고, 이것이 바로 14번 목표입니다. SDG14의 구체적인 목표는 모두 7가지로 ▲해양 오염을 줄이고 ▲해양 생태계를 복원하며 ▲해양산성화 영향을 최소화하고 ▲어류자원을 회복시키는 것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이를 위해 특히 소도서개도국과 최빈국의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하여 해양환경을 개선하고 해양생물다양성을 높이며, 소규모 영세 어민을 보호하

고, 유엔해양법협약을 이행하는 것을 세부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유엔은 또한 2017년 6월 개최된 유엔해양회의에서 바다에 대한 이해와 해양과학 역량을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SDG14의 실현 방안으로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UN 해양과학 10년(2021-2030)’을 선언했습니다. 유네스코 정부간해양학위원회(IOC)는 ‘UN 해양과학 10년’을 이끄는 기관으로, 해양과학 지식을 생산하고 관련 자료 및 정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한편, 해양과 해양자원에 대한 조사-연구를 주도하고 쓰나미 관측 및 대처, 회원국의 해양환경 관리 개선, 지속가능한 개발, 정책결정 과정 개선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IOC 의장을 배출하고 해양수산부-IOC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국제 해양과학분야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구가 다른 행성과 명백히 구분되는 색깔을 갖게 해 주었지만, 차츰 푸름을 잃어가는 바다를 이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깨끗한 바다, 건강하고 회복력 있는 바다, 예측 가능하고 안전한 바다, 지속가능한 생산이 이루어지는 바다를 위해 우리 모두 해양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마이크로비즈 퇴출운동’, ‘플라스틱제로’ 등 우리 생활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실천과 활동에 동참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참고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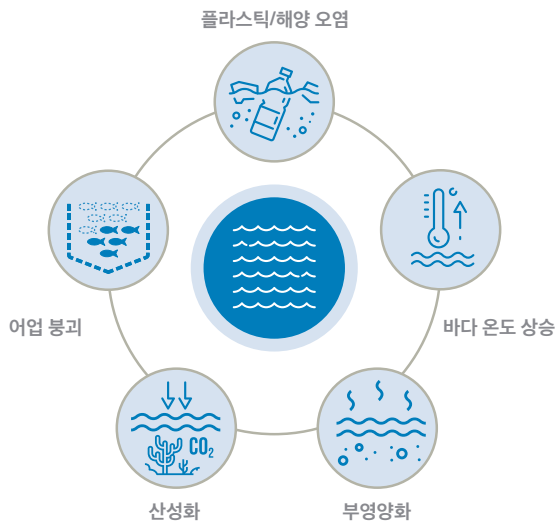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한국해양위원회 『우리의 지속가능한 해양』 김용서 외, 2019
- unesco.org "World Oceans Day"
- www.oceandecade.org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대양, 바다,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전

우리 바다의 지속가능성이

심각한 위협에 직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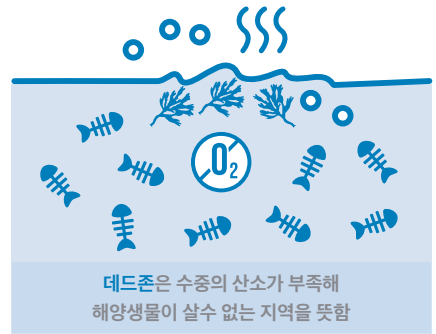
30억 이상의 인구가
생계를 바다에 의존

전 세계 국가중 절반이
소규모 어업 장려를 위한
구체적 계획안 채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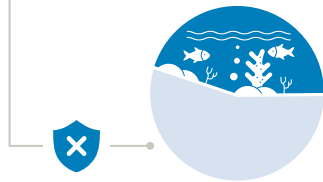
데드존이

무서운 속도로 증가
2008년 400곳에서 2019년 700곳으로



절반 이상의

해양 생물다양성 핵심지역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음



평균적으로
국가연구예산의 1.2%만이
해양과학에 배정



생태계의 일원으로서 지구의 미래를 지키는 일

김은영 과학청년팀장

지구상의 많은 사람들이 빌딩숲에서 살고 있어 자연과 분리되어 사는 것 같지만, 여전히 인류는 하나의 종(種)으로서 생태계의 일원으로 살고 있습니다. 생물다양성은 생물들이 얼마나 다양한지를 뜻하는 말로, 동식물과 미생물을 비롯한 생물의 종과 유전자의 다양성 및 생물이 살아가는 기반이 되는 생태계의 다양성을 모두 아우르는 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 바다의 플랑크톤부터 20미터가 넘는 대왕고래, 100미터가 넘게 자라는 유칼리나무에 이르기까지, 지구에는 약 1400만 종의 생물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양한 생물들이 갖고 있는 유전자의 다양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유행병이나 기후변화와 같은 위협이 닥칠 경우 유전자가 다양할수록 적응하고 생존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생물다양성은 우리 인간에게도 유익합니다. 인간은 음식과 건축자재, 섬유, 의약품, 땀감 등 대부분의 일상을 다양한 생물에서 유래한 것들에 의존하고 있으며, 자연에서 휴양을 즐기고 정서적 안정을 얻기도 합니다. 이러한 자연의 혜택을 '생태계 서비스'라고 하는데, 생물 종, 유전자, 생태계가 다양할수록 다양한 생태계 서비스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물다양성은 위협받고 있습니다. 아마존 열대림의 파괴에서 보듯 개발로 인한 서식지 파괴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또한 국가간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외래종으로 인한 생물다양성 손실도 늘고 있으며, 기후변화에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유엔은 생물

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특히 개발도상국이 보유한 유전자원(genetic resources) 이익의 공정한 배분과 유전자원에 대한 주권적 관리권한 보호를 위해 1992년 '생물다양성 협약'(CBD)을 채택했으며, 이미 1973년에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을 채택하여 멸종위기종 보호를 위해서도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17개 유엔 지속가능발전 목표 중 15번을 '육상생태계 보전'으로 지정하고, 구체적으로 생태계와 생태계 서비스의 보전과 복원, 삼림 파괴 중지 및 복원, 사막화 방지와 황폐화된 토지 복원, 멸종위기종 보호, 유전자원 활용 이익의 공평한 공유, 동식물 포획과 밀거래 중단, 외래종 유입 방지, 생물다양성 가치의 국가 정책 반영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장소로 유네스코가 지정하는 '생물권보전지역'을 들 수 있습니다. 생물권보전지역은 1970년대에 시작한 제도로, 보전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발전까지 추구하는 포괄적인 장소입니다. 생물다양성이 뛰어난 핵심구역과 이를 둘러싸면서 교육과 연구 활동이 이루어지는 완충구역, 그리고 주변의 넓은 지역을 협력구역으로 포함합니다. 우리나라에도 2019년에 지정된 연천 임진강과 강원생태평화지역을 포함, 8곳이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2021년 8월 현재 기준)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면서 지속가능하게 이용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진정되면 가까운 생물권보전지역을 방문해 생물다양성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겨 보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활동에도 참여해 보면 어떨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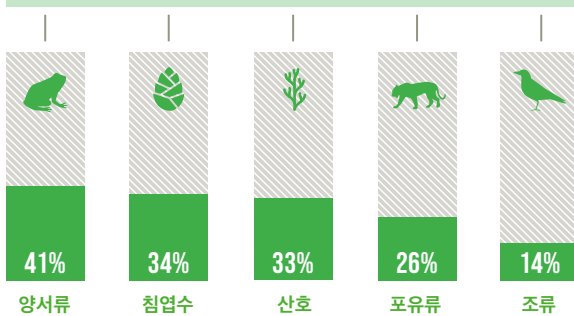


육상 생태계 보전, 복원 및 지속가능한 이용 증진, 지속가능한 숲 관리, 사막화와 토양 황폐화 방지 및 복원, 생물 다양성 감소 방지

IUCN 적색 목록 분석대상 중 4분의 1 이상의 생물종이

멸종 위기

멸종 위기에 처한 생물종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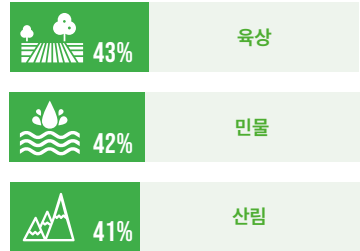


IUCN 적색 목록

134,400종 이상의 포유류, 조류, 양서류와 산호, 침엽수의 데이터를 추적해 위기 정도를 파악한다. 37,400종 이상이 멸종 위기에 처해있다.

핵심 생물다양성 지역의 보전을 위한 진전이 지난 5년간 정체

핵심 생물다양성 지역 중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세계 평균 비율 (2021)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침입외래종 방지 및 통제 위한 법률 도입



침입외래종은

토종 생물다양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로 인해 연간 수십억 달러의 비용이 소요된다.

지속가능한 숲 관리 위한 진전을 이룸

그러나 지난 20년간
1억 헥타르 규모의 숲이

전세계에서 사라졌다.
(2000-2020)



지속가능발전의 전제조건이자 결과

김형신 과학청년팀 선임전문관

폭력이 난무하고 사법적인 정의가 무너진 불안한 사회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이하 SDGs)의 달성은 가능할까요? 모든 형태의 폭력과 분쟁, 취약한 제도는 사회발전을 가로막는 커다란 장애물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유엔과 국제사회는 평화로운 사회와 법의 지배, 거버넌스에 대한 포용적인 접근의 중요성을 SDGs의 과제 중 16번째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SDG16이 달성되지 않으면 SDGs 전체의 달성을 기대할 수 없고, SDGs가 달성될 때 비로소 평화롭고 정의로우며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 수 있기에, SDG16은 SDGs의 전제조건이자 결과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는 아직도 폭력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부정부패로 인해 사법적 형평성이 보장되지 않으며, 언론인에 대한 테러로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 매일 접하게 되는 각종 강력범죄와 차별과 폭력, 사이버 공간의 한계를 차지하고 있는 허위정보와 악성댓글 등은 우리 사회 역시 폭력 문제를 직시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SDG16의 첫 번째 세부 목표(SDG16.1)는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폭력과 그로 인한 사망률을 대폭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세부 목표(SDG16.2)와 첫 번째 이행수단(SDG16.a) 역시 폭력의 종식과 폭력의 예방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만큼 폭력을 없애는 것이 SDG16의 달성에 중요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누군가의 신체에 해를 가하는 행위만을 폭력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차별이나 혐오 등 눈에 보이지 않는 폭력도 심각

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쟁은 인간의 마음 속에서 생겨나는 것이므로, 평화의 방법을 세워야 할 곳도 인간의 마음 속이다.” 제2차 세계대전의 참화 속에서 만들어진 유네스코는 전쟁도, 평화도 모두 인간의 마음 속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현장의 서문에서 강조합니다. 나라와 나라, 집단과 집단, 사람과 사람 간의 갈등과 통합은 결국 인간의 마음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지속가능한 평화는 ‘전쟁이나 신체적인 폭력이 없는 상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정치적이며 경제적인 차별과 억압, 불평등 같은 구조적 폭력을 없애고 상호 공감과 신뢰의 문화가 형성될 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중심은 어디일까요? 심장, 머리, 혹은 배꼽(?)일까요? 사실 우리 몸 어딘가 아프다면 하루 종일 온 신경이 그쪽에 쓰일 것입니다. 바로 그 곳이 우리 몸의 중심이 아닐까요? 같은 의미에서 세상의 중심은 어디일까요? 혹은 세상의 중심은 어디여야 하는 것일까요? 2015년 유엔 총회는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채택하며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라”(Leave no one behind)를 슬로건으로 정했습니다. 지구촌에서,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우리 마을에서 가장 아픈 곳을 가장 먼저 보살필 수 있다면, 우리는 조금 더 평화롭고 정의로우며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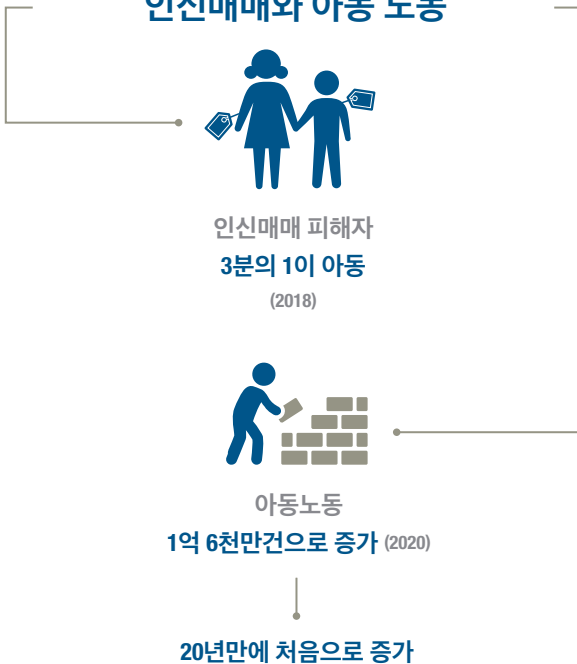
- 신영복 『강의』, 2004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우리의 지속가능한 평화』 김성경 외, 2019
- un.org 'UN, Peace, Justice, and Strong Institutions: Why it matters'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증진,
모두를 위한 사법 접근권 제공,
모든 차원에서 효과적이고 책무성 있으며 포용적인 제도 구축

팬데믹으로 아동 착취 위험 심화

인신매매와 아동 노동



2020년
인권운동가 피살 건수
32개국에서 331건으로 집계



2019년에 비해 18% 증가

겨우 82개국만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독립적 국가인권기관 보유

(2020)



뇌물 관련 범죄가 저소득국가에서 고소득국가 대비 5배 이상 발생



저소득국가
37.6%

고소득국가
7.2%

지속가능발전목표 17번 - 목표 달성을 위한 파트너십

더 나은 세계를 위한 하나의 목표

김기담 브릿지팀 YP*

목표달성을 위한 파트너십(SDG17)은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중 마지막 목표이지만, 다른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한 기반이 되는 목표이기도 합니다. 다른 듯 보이지만 결국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 전 세계가 한 목소리를 낼 것을 요청하는 것이 바로 SDG17이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파트너십은 정부·민간·시민사회 간 협력 및 세계·지역·국가 차원의 포괄적인 파트너십을 의미합니다. 2021년 6월에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제안하여 합의된 '더 나은 세계 재건'(Build Back Better World, B3W) 의제 역시 글로벌 파트너십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는 개발도상국을 위한 글로벌 인프라 건설 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해 개발도상국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개발도상국 및 선진국을 모두 포함하는 국제 네트워크를 만들어 간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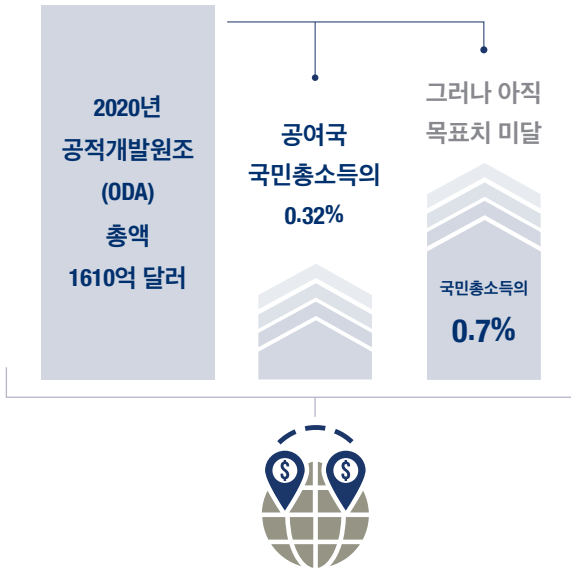
목표달성을 위한 파트너십을 확대하기 위한 SDG17의 세부목표로는 ▲모든 국가, 특히 개도국의 SDG 달성 지원을 위해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협력을 포함한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파트너십 기관이 가진 자원 조달 전략과 경험을 기초로 효과적인 공공, 공공-민간 및 시민사회 간 파트너십 독려 및 촉진 ▲최빈개도국과 군소 도서 개도국 등 개발도상국의 역량 구축 지원 강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일관성 강화 등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각국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각국의 정책과 리더십을 존중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부터 국가들이 회복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글로벌 파트너십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모두에게 고통스러운 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모든 국가가 서로 협력하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 연대의 정신을 발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프로페셔널(YP)은 우리나라 청년들의 국제개발협력사업 참여 촉진을 통한 ODA 전문 인력양성을 목표로 시행되는 코이카의 인재 양성 사업입니다.



이행수단 강화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활성화



예상과 달리,
중-저소득 국가대상
해외송금 규모
5400억 달러 (2020년)



2019 대비
1.6% 하락에
그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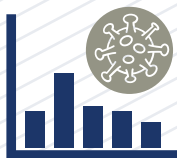
외국인 직접 투자
40%까지 감소



거의 전 세계의 절반인
37억 명의 인구가
온라인 접속 불가



팬데믹 상황에서
온라인 연결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



63%의 중-저소득 국가에서
팬데믹 위기 극복을 위한
데이터와 통계 분야 추가 재정이 필요

SDGs(지속가능발전목표) 돋보기

발행일	2021년 10월 20일
기획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글쓴이	윤선이 백주영 신종범 김현규 권 송 최연수 백영연 장자현 장지원 김슬아 손다희 김은영 김명신 김기담
펴낸곳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펴낸이	한경구
등록	제2002-000172호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유네스코길) 26
전화	02-6958-4100
이메일	online@unesco.or.kr
홈페이지	www.unesco.or.kr
편집	김보람 김은영 장지원
디자인	수카디자인

ISBN 979-11-90615-18-1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간행물등록번호 PR-2021-BK-1

비매품

SDGs 돌보기

